



영어로 business는 bus,ness이다. 일본어로 '忙し'라고 하는 말의 한자도 재미있다. '忙'을 좌측과 우측으로 분해하면 '마음이 절멸하다'는 뜻이다. 이것을 세로로 조합한다면, '忘' 즉 '행복의 본질을 잊어 버린다'로 되는 것도 정말로 의미심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말처럼 신흥 부르주아지의 모습을, 행복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형태로 이상화해서 그렸던 것이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었다. 이 책에서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의 종교가 중에서도 칼빈(Calvin, J)의 영향이 강조되고 있다.

칼빈은, 신(神)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신의 영광을 현세에 실현해야만 할 비즈니스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이익)를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쓰지 않으므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직업은 신이 내린 천직(calling)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막스 웨버에 의해 증시된 미국 자본주의의 개척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부(富)에 이르는 길은, ... 확실해지고 있다. 그것은 주로 근로와 검소, 이 두 가지에 관련되고 있다. ... 정직하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남김 없이 손에 넣고, 얻어진 것은 남김 없이 절약(저축)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유해질 것이다."

여기서는 경제(학)에 관한 확실한 철학이 있었다. 스미스 이후의 경제학을 신고전파 경제학으로서 집대성한 사람이 알프레드 마셜이다. 자본주의는 스미스가 생각한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장미 빛으로 꽃핀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밝혀지고

있었지만, 마셜은 '경제기사도'를 설명하고 기사도 정신과 철학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영국자본주의가 건전하게 운영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자본주의가 침체하여 버리지는 않는가, 그 활력은 무엇에서 구해져야만 할 것인가는, 오늘날도 심각한 문제이다. J.A 슈페터는 기업가가 행하는 혁신(innovation) 가운데서 경제적 활력의 원천을 구했다. 경제 주체의 역할은 이노베이션에 있고 이노베이션의 이러한 결과 낮은 생산비에 의한 이익, 새로운 상품 개발로 높은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이익이 발생한다. 이것을 창업자 이익이라 부르고, 이익의 본질은 이 창업자 이익이라고 했다.

슈페터가 저술한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1942년)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경제가 인간의 주체적·창조적 활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대경제학이 아무리 수학적으로 정밀한 경제이론을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도 '장난감 철포'여서 기업가의 혁신에 의한 경제변동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경제주체의 또 한편의 역할자인 노동자에 관해서 스미스는, 분업에 의한 노동의 단순화가 노동자의 인간성을 훼손하는 것을 우려하고 이런 면에서의 정부의 역할, 개입을 옹호하고 정부의 교육에 의한 인간성의 보완 향상을 원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분업과 빈곤에 의한 인간성 손상을 '인간소외'라 부르고, 마르크스즘 경제분석의 중요한 도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는 공산주의 혁명의 담당자로서 최고의 역할이 기대되

'자리이타원만' 실천하는 경제활동 돼야

자신의 행복 바라기 전에 타인의 행복도 돌아보라



있었다. 그러면 불교경제학에 있어서 경제주체의 역할은 어떠한 것일까?

우선 스미스가 강조한 '자기이익의 추구'에 상당하는, 불교경제학의 경제주체의 활동동기·뜻(innovation)이라고도 해야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자.

그것은 '자리(自利)'에 대해서 '자리이타원만(自利利他圓滿)'의 추구이다. 이익의 추구란 자리와 이타가 하나(一法)로 된 행위라고 하는 의미이다.

'자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기능하는가? 하는 의문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스미스에 있어서 '자리'의 강조는 중상주의적 정부가 국가이익이라는 명분하에 당시의 부르주아지에 간섭 통제된 것에 대한 반항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여진다.

대표적인 자본가이자 냉철한 사업가였던 헨리 포드는 당시의 기업가의 영리추구경영의 상식이었던 '노동자는 가능한 한 싼값으로 고용하고, 고객에게는 가능한 한 고가로 판다'고 하는 상식과는 정반대를 행한 것이다. 노동자를 고임금으로 고용하고, 고수익이 보장된 그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대우했다. 후세에 포드·시스템으로서 전해 내려온 유통직업방식에 의해 자동차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고, 열가 판매에 성공한 것이다. 노동자도 차를 살 수 있다고 하는, 로스토우가 명명한 '대중 소비 시대'는 이와 같이 개막하여 포드는 '자동차 왕'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자리이타원만의 실천이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稻盛和夫) 교세라 회장을 비롯해, 일본의 불교적 경영자 가운데에는 자리이타원만을 추구해 성공을 거둔 실례가 많은데, 두개의 예를 들어보자.

하나는, YKK로서 알려지고 있는 지퍼의 요시다(吉田)공업주식회사이다. 세계의 지퍼 생산왕이라 일컬어지는 동사 창업자인 요시다 다다오(吉田忠雄)는 젊을 때에, 미국의 제철왕 카네기의 '타인의 행복을 원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말에 감격하고, 공리하고 절약해서 발생한 이익을 기술개발과 신규설비에 투자하고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꾀했다. 또한 그것을 투자, 재투자하는 반복 속에서 세계적인 지퍼메이커가 된 것이다. 요시다는 그런 반복을 '선순환'이라 명명, 동사의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후지 다이즈(dies) 주식회사의 예다. 사장인 신조 다카요시(新廣 應義)씨는 군인출신 경영자이며, "불교성전을 경영에 살리는 모인"의 회장이자, 후지 다이즈는 산요(山洋) 특수강에 나사를 굵은 공구인 다이즈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였다. 그런데 산요특수강은 전후 최대의 도산사태에 휩쓸렸다. 도산 소문이 나돌기만 해도 은행을 비롯한 거래 회사는 채권회수에 협안이 되는 것이 상식이다. "은행은 비오는 날에 우산을 빼앗는다"고 욕을 듣는 것은 이때문이다. 당시 산요특수강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던 회사는 후지 다이즈를 포함하여 3사가 있었지만, 2사는 도산을 염려해 일제갑자 공급을 중단했다. 그리고 후지 다이즈 1사만 남았다. 신조 다카요시 사장은 "자고 있는 병자에게 약 값 안내라고 약을 중지하는 것은 건디키 못하는 일"이라며 제품의 공급을 최후까지 중단하지 않았다. 결국 후지 다이즈는 거액의 불량채권을 떠안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후 산요 특수강의 경쟁 과정에서 재건후의 오늘까지, 동사는 후지 다이즈를 유일한 공급회사로서 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원래부터 결과를 기대해서 행한 것은 아니고, 단지 "손님이 봉사한다"고 하는 근본정신의 발로 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익의 근원인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공급한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익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불교적 경영자들의 공통 인식인 것이다.

■ 인동대 경제학과 교수

28 인도기행

코칭 워크숍의 어느 과정에선가 달라이 라마의 새천년 법어(法語)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19개 항목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었지만, 한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일 년에 한 번은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라." 금년에는 연간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하여 5월에는 튀니지야, 10월에는 중국의 장강 삼협(長江 三峽) 여행을 다녀왔고, 11월 말에는 8박9일 간 인도여행을 다녀왔다. 북인도 지역의 여섯 도시 델리-자이푸르-아그라-오차-카주라호-바라나시 등을 엮는 조금 벅찬 일정이었다.

튀니지야 여행을 일찍이, 지중해 해변의 맑고 짙푸른 하늘과 바다, 사하라 사막의 회고 고운 모래 구름, 작열하는 태양 아래 오렌지와 피클 색조를 내뿜는 신기루 같은 염호(鹽湖), 황야를 달리는 '붉은 도마뱀 열차', 황무지의 일몰 무대를 내려 덮는 짙은 보라색의 벨벳 커튼 같은 어둠, 그리고 별이 쏟아지는 오아시스 천막야영 등을 보석 껍데기 엮어 그린 아름다움 수채화라 부른다며, 장강 삼협 여행은 하늘에 닿아 흐르는 물길, 자욱한 안개가 어백 되어 펼쳐진 비단 화폭 위에, 깎아지른 푸른 임벽과 수목, 그리고 옛 시인묵객의 시부(詩賦) 운문까지 담채(淡彩)로 그려 담은 여러 폭 동양화의 신운(神韻) 체험이었다고 할까?

인도 여행을 무어라 표현하면 좋을까? 믿을 수 없이 다양한 인도의 도처 삶이 7천 년의 세월을 연면히 흘러 오늘에 이르는 어김 없는 현장을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으로 바라보며 얻는 찬탄과 탄식의 태피스트리 직조(織造) 같은 것. 섬세함과 거친 터치를 자유자재로, 호사로움과 암울한 채색을 부사의(不思議)하게 뒤섞어 그런 오래된 유희(遊戯)를, 달인 먼저 후후 불어 내고 눈 비비며 보는, 다소 불편한 그런 감동.

아그라의 세계 7대 불가사의의 건축물, 대리석 묘묘(墓廟) 타지마할에 담긴 황제의 애비(愛妃)에 대한 애뜻한 사랑 이야기. 그 섬세하고 호사스러운 아름다움의 극치를 직접 두 손으로 쓰다듬어 몸에 담아두었다. 다음날, 카주라호에 이동하여 천년 전 찬달라 왕조에 의하여 건설되었다는 사원군(寺院群)의 미투나 상(像) 조각에서 만난 자유분방하고 예묘적인 천녀(天女)들의 모

허달의 불교와 코칭

일년에 한번은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자

습, 익살스럽고 창의적인 카마수트라 교합상(交合像), 성(性)의 회열을 열반으로 승화시키려 했던 당시 인도인들의 천연덕스럽운 소망이 예술성의 바탕 위에 예로스의 모습으로 꽃 피워 응징된 것을 찬탄한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오래된 도시 바라나시로 이동, 자전거 인력거인 택시를 타고 지근거리까지 접근해 체험한 저자바닥은 오전에 황홀했던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른 충격 그 자체였다. 매연, 소음, 오퍼 냄새, 자전거, 오토바이, 삼륜차 택시, 그 사이를 경적 요란히 울리며 비집는 승용차들, 쏟아져 나온 행인, 혼잡을 집 삼고 유유자적 어슬렁거리는 주인 없는 소들과 버려진 개들의 무리, 비둘기 때는 또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틀만 보이면 '원 달러(One dollar)'를 구걸하며 여행객의 웃거품을 잡는 걸인들도 거리의 당당한 주역이었다. 이 흐름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질서는 과연 무엇일까?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37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0년 1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 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 ② 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현 공 편(삼보통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 ④ 개의식편(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 ⑤ 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염반,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할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신빌딩 3층) ☎ 02)733-1959, 720-1836

공 고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산하에 등록된 일부법왕종을 제외한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능인스님, 국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일웅(도천)스님, 대한불교 아미타여래종 총무원장 현송스님 외 37개 종단은 2009년 12월 1일부로 본 재단 산하에서 상기 종단을 해체하기로 결정되어 이에 공고하오니 각 종단과 사암에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2010년 2월 중순부터 본 재단 부설 통합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재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등록할 예정이오니 앞으로 이들 종단에서는 법왕청 산하 종단의 명칭을 사용중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이사장 담화